



THE UNITED

‘그라운드의 대인배’ 송제헌,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NO. 9
송제헌

1986.07.17 / 177cm 75kg

- 2009~2009 포항 스틸러스
- 2010~2012 대구 FC
- 2012~2013 전북 현대
- 2014~2015 상주 상무
- 2016~현재 인천유나이티드

Q. 최근 출전 기록이 적었는데 올해 인천 이적 후 기회를 잡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지난 3년간 선수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경기 출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나만 생각하는 선수에서 팀을 생각하는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이 올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경기에 출전하고 인천이라는 팀에서 선수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인천으로 합류하시게 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김도훈 감독님 밑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에이전트를 통해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이 많이 삭감되어 에이전트는 제가 안 갈 줄 알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김도훈 감독님과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시즌 공격수에게 상징인 9번을 배정 받으셨는데 직접 선택하신 번호인가요? 그리고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부담감은 없었어요. 등번호를 정할 때 기존 선수들이 배정된 번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감독님께서 저한테 올 시즌 등번호 9번을 달지 않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셨죠. 개인적으로 원래 등번호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9번을 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Q. 이제 프로 8년차가 되셨습니다. 인천에서는 선참급인데 어떠신가요? 선참이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선참은 아니기에 부담감도 덜해요.(웃음)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저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합니다.

Q. 팀의 1986년생 동갑내기 선수가 한명도 없는데 외롭거나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음, 딱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식의 선후배 문화를 싫어하거든요. 동생들에게도 우린 친구라고 이야기하고는 해요.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Q.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경기 뛰는데 ‘왜 웃느냐?’고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경기에 뛰는 게 좋아요. 의도적으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안에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Q. 이번 시즌 개인 그리고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팀이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예요. 개인적인 목표는 몸관리를 잘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팀을 위해 득점도 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네요. 그저 올 시즌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인천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막 후 팀이 항상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힘을 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선수들에게 강한 말씀도 하시고 가끔씩 야유도 하시는데 모두 저희를 너무 사랑해서, 인천이라는 팀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께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결과로 팬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 = 우승민 UTD기자(wsm3266@hanmail.net)

TODAY MATCH



인천

VS

2016/07/03 (일) 18: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제주

NEXT MATCH



인천

VS

2016/07/17 (일) 18: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서울



‘6월 안방 불패’ 인천, 개막전 아픔 씻는다

인천유나이티드가 개막전에 패했던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안방에서 복수전에 나선다. 인천은 오늘(3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8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인천은 시즌 개막전에서 제주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다. 세트피스에서 아쉬운 수비 집중력으로 3골을 내준 인천은 원정에서 패하며 힘겹게 시즌을 시작했다. 이번 시즌 제주는 공격 축구로 초반부터 기세를 올렸다. 상대의 기세를 꺾는 인천의 수비로 개막전에 당한 패배의 빚을 제주에 갚아야 한다.

단단해진 6월, 빛 청산 적기

5월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 인천은 6월들어 2승 2무 1패로 완벽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초반 무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불안정한 수비가 제 모습을 찾으며 팀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5경기에서 단 3골만을 실점했고 3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냈다. 전력이 안정됐으니 그간 잃었던 승점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 시즌은 인천이 제주에 강했지만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엇갈렸다. 개막전에서 제주 원정을 떠난 인천은 세트피스에서만 3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제주는 17경기 32골로 현재 리그 팀 득점 2위에 올라 있다. 높이를



앞세운 세트피스 외에도 특유의 빠른 역습으로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했다. 인천이 순위 상승을 위해선 중상위권의 제주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 제주는 인천 원정에서 최근 수년간 승리하지 못했다. 개막전의 빛을 갚을 적기를 맞이한 셈이다.

제주의 공격에도 약점은 있다

겉으로 보면 제주만큼 화려한 공격을 갖춘 팀은 드물다. 최전방 공격수의 마무리, 연계 능력과 빠르고 능동적인 2선,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넓은 시야를 보유한 3선까지 제주의 많은 특점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제주에도 약점은 있다. 제주는 지난 17라운드 시즌 5번째 무득점 경기를 치렀다. 강한 공격도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제주를 무득점으로 묶은 팀들의 공통점은 좁은 수비 간격과 점유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었다. 제주의 중원과 정면승부를 벌여 높은 소유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점유율을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낮은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역습에 나서는 인원을 최소화해 공격보다 수비에서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주의 공격 기점인 리그 도움 1위 마르셀로의 존재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제주 사냥의 시작점이다.

예상 포메이션



상대전적		
통산기록		
10 승	14 무	10 패
30득점 30실점		
2015년		
2 승	1 무	0 패
2득점 0실점		





INTERVIEW

인천UTD 그린스타디움 수상의 주역

‘잔디박사’ 경기장관리팀
권영탁 사원을 만나다!



“잔디는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축구경기장의 잔디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요. 그래서 썩스럽지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잔디는 마치 내 자식과 같아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잔디 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권영탁(29) 인천구단 경기장관리팀 그린키퍼(잔디전문가).

권 그린키퍼와 잔디와의 인연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시작했다. 원예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영주과 시절부터 나무에 유독 관심이 많았지만, 당시 생명공학분야가 큰 인기를 끌면서 동국대학교 나노생명학과로 진학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식물과 함께 자란 권 그린키퍼는 군 제대 후 같은 대학 조경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잔디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4년간 조경학을 배운 그는 곧바로 경북 포항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조기 취업하게 되며, 온통 잔디로 둘러싸인 골프장에서 본격적으로 잔디에 대해서만 파고들었다.

보다 폭넓은 잔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그린키퍼’과정을 1년간 밟은 후 같은 대학원 ‘잔디전공’으로 진학했던 그는 지난 2013년 인천구단 잔디관리직 직원채용에 응모, 그해 6월 구단에 입사했다. 입사 후 3년 동안 시즌 중에는 혹여 잔디가 상할까 매일 잔디상태를 체크하고, 비시즌 중에는 보다 나은 잔디를 가꾸기 위해 공부로 1년 내내 쉴 틈이 없는 권 그린키퍼는 인천구단에 입사하면서 잠시 내려놔던 대학원 공부를 오는 9월 다시 하기로 하는 등 오직 자신의 인생에는 잔디뿐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잔디와는 달리 축구장, 야구장 등에 사용되는 잔디는 ‘켄터키블루그라스’라는 종류로,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나 슬라이딩 등을 했을 때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잔디”라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잔디를 소개한 그는 “축구장 잔디는 3월 시즌 시작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7~9월 고온다습한 기후에 잘

버틸 수 있다”며 “경기장 잔디는 12~1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손질해야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고 잔디관리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으로 잔디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권 그린키퍼로 인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지난 2014년 한 차례 ‘그린 스타디움상’을 받았고, 올해 역시 최근 1차 ‘그린 스타디움상’을 받았다. 이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오는 9월 있을 2차 평가에서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한 다음 12월 최종 ‘그린 스타디움’ 대상을 꿈꾸고 있다.

그는 “‘그린 스타디움’ 대상은 한 시즌 동안 K리그 모든 선수들이 최상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경기장 잔디를 유지한 경기장에 주어지는 상인만큼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축구경기가 아닌 일반 행사 이후 잔디가 손상됐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권 그린키퍼는 “운동장의 잔디 상태에 따라 경기력이 많이 좌우되는 만큼 천연잔디에서는 직립상태, 견고성, 수분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천연잔디에서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잔디관리자가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최연소 잔디관리자인 그는 “축구 국가대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내가 가꾼 천연잔디경기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날을 위해 매일 공부하고, 열심히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또한 잔디박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권 그린키퍼는 “일단 우리 인천선수들이 홈경기 때 최고의 잔디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잔디를 가꾸는 것이 우선 목표”라면서 “인생을 잔디에 바친 만큼 유럽프로리그 축구경기장 잔디도 꼭 한번 가꿔보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밝혔다.

글 = 기호일보 최윤탁 기자(cyt@kihoilbo.co.kr))

> Premier Sponsor



> Official Kit Sponsor



> Official Sponsor



> Official Partner



 인천유나이티드 시즌권으로 축구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재미난 영화도 보자!



인천점, 인천터미널점, 인천논현점, 주안역점,
계양점, 인천공항점

현장구매시 2000원 할인

- 프라이م (월~목, 16시~22시 이전)
(금~일, 10시~24시 이전)
-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 **할인미적용(좌석)** 이코노미 좌석
- ※ **할인미적용(시간대)** 모닝, 브런치, 문라이트, 나이트



드라마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자철타워 3층
프라임마리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6번지 아이즈빌 아울렛 2층

- 50%**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50% 할인
- 30%** 동반 5인까지 30% 할인
- 10%** 경기 당일 티켓 소지자 10% 할인

- ※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 12월 한 달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 3층

- 20%**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20% 할인
- 10%** 경기 당일 티켓 소지자 10% 할인

- ※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은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